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요약문

이혜정 고신대 박사수료

I. 서론

상담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실적 중 자살·자해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 건수는 12만5천797건으로 2018년 해당 상담실적 7만1천214건보다 76.6% 증가하였다. 청소년 상담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청소년의 고립감이 심화된 상황에서 더욱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 우울도 심각하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후 세계 각국에서 우울증과 불안증의 발생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한국은 우울증 유병률이 36.8%로 OECD 1위로 집계되었다. 한국 국민의 10명 중 4명이 우울증 또는 우울감을 느끼고 있으나 적절한 의학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의학신문, 2021.05.26.). 우울과 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상담을 찾는 이들에게 인지 행동 요법(CBT)은 불안(DiMauro et al., 2013 ; Sigurvinsdóttir et al., 2020) 및 우울증(Hvenegaard et al., 2019; Mahmoodi et al., 2020)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Seligman(2002)의 긍정심리학은 실존주의, 인본주의 이론과 인지행동치료의 과학적 방법을 도입하여 인간의 강점과 긍정적인 면을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의 행복감에 초점을 두고(Seligman, M., 2002) 접근하고 있으며 자기효능감(self-efficacy), 희망(hope), 낙관성(realistic optimism), 복원력(resilience)과 같은 인간의 4가지 긍정적인 심리적 속성(Luthans et al., 2007; 박권홍, 2012; 박지현, 2021) 등 우울감 극복을 위한 긍정심리자본 연구 등 다양한 접근도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본주의 심리학에 기초한 상담은 본질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교상담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인본주의 심리학이 추구하는 바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닌 개인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Maslow, 1970)가 되는 것으로 매우 개인주의적인 접근을 제공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희생과 타인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기독교 세계관과는 다르다 볼 수 있다(Tan, S. Y., 2011). 긍정심리학 또한 Rogers와 Maslow 주장의 연장선으로 긍정심리의 '행복'이 자기실현과 긍정성, 긍정심리자본 등에 의존하는 반면에 성경의 '복'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부여되는 영적 만족감을 누리는 데서 온다는 차이가 있다(박은호, 2021). 인지치료적 접근 중 하나인 마음챙김의 경우에도 '불안'을 실제화 시켜서 정면으로 응시하면 경계에 집착된 마음을 공하게 하여 경계 역시 공해지게 하는 것, 그래서

경계가 사라지고 실체를 없애서 집착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오용석, 2021)을 추구한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상반되는 것이다. '세속의 목회사역자'라고 주장하던 정신분석학자들의 호칭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덧 심리학은 종교를 대신하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의 위치에까지 스스로 올라간 듯하기도 하다(황규명, 2011). 그리고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삶의 방향을 묻는 내담자들은 기독교세계관과 다른 인본주의적, 개인주의적 세계관을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살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다루기 위해서는 심리 상담으로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묻는 것만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으며, 이는 믿지 않는 이들도 마찬가지다. 기독교상담의 모태가 되는 목회상담의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회상담자와 내담자의 소통만이 아닌,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과, 목회상담자, 내담자 간의 삼자간 대화(Trialogue)라고 강조하였다(Oates, 1986). 이는 기독교상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기독교 상담자가 내담자와 하나님 사이의 중간자적 역할을 통해 내담자의 문제를 다룰 뿐 아니라 하나님과 내담자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재현, 2020).

강용원(2012)에 따르면 하나님과의 관계 수립, 치유를 향한 회개의 촉구와 기도는 상담에서 중요한 기동이며, 영성은 자원이며, 진정한 종말론적 소망의 원천은 예배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진정한 소망과 전인적 회복,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내담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기독교 상담은 기존의 인간중심 상담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말씀과 기도, 찬양 등의 기독교 전통과 예배를 통한 영혼의 치유가 심리학에 의해 대체되어지고, 눈부신 과학의 발전과 능력 앞에 무기력을 느끼며, 물질만능의 가치관 속에서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삶의 고난 중에서 인생의 길을 묻는 이들에게 기독교상담이 제시하는 방법들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 상담의 전문적 발전을 위해서는 기독교 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개념화가 필요하다. 사례개념화란 내담자가 호소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신체생리, 인지, 정서, 대처행동, 대인관계 문제)를 초래하고 지속시키는 근원 및 유지요인과 지금 상담에 오게 한 결정적 사건인 촉발요인에 대해 통합적이고 입체적인 핵심가설을 수립하는 것이다(Sperry, L., & Sperry, J., 2012). 사례개념화는 내담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런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실증가능한 경험적 자료와 논리적 추론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다(박태수 & 고기홍, 2003; 고기홍, 2005).

일반 상담의 영역에서는 상담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례개념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사례개념화는 전문상담자 교육, 상담 사례 분석, 슈퍼비전을 통한 감독 등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져 왔는데(이명우, 2004; 이운주, 2001) 이는 사례개념화를 통해 내담자와 당면한 문제를 잘 정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와 전략을 구상하는 등(이명우, 2004; 이운주, 2001)

상담의 지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례개념화는 상담자의 역량에 속하는 것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최대한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을 준다(이운주, 2016).

그러나 일반 상담과 달리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 연구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기독교 상담의 사례 개념화는 신앙적이고 원론적 접근이 추가되어지며 각 개인의 삶과 환경과 고난 속에서 접하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한 타당한 분석과 실제적 도움 방안, 그리고 개입전략들이 신앙적이고 성경적 관점 아래서 세워져야 한다. 기독교상담의 이러한 특성은 일반상담이나 신학과 다르며 기독교상담만의 독특성을 의미한다(전요섭, 2017). 하지만 현재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태이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기독교상담은 심리학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므로(장동진, 2016) 통일된 사례개념화의 요소와 구성을 제시하기가 매우 힘든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독교상담자들의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 경험을 살펴봄으로서 그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 경험은 어떠한가?

- 1) 상담자의 내담자 이해의 경험은 어떠한가?
- 2) 상담과정의 경험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기독교상담

1) 기독교상담의 발전과정과 통합의 관점

기독교상담은 구약시대의 아담과 하나님과의 만남부터 목회적돌봄과 목회상담을 거쳐 기독교 상담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영적, 철학적, 이론적, 실제적 영역을 넘나들며 긴 시간 발전 해 왔다(김용태, 2016). 일반적으로 기독교상담의 기원은 성서에 나타난 종교기도자들의 목회적 돌봄에서 그 기원을 가지는 것으로 보며, 현재의 기독교상담은 목회자가 영혼돌봄을 위해 진행하는 목회상담을 포함하여 기독교 내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모든 상담활동으로 볼 수 있다(강용원, 2004:8).

여기서 '영혼을 치료하는 목사'로서의 보살핌은 삶의 의미에 대한 문제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지탱하고, 지도하고, 그리고 만족하게 하는 활동을 도와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Clebsch & Jaekle, 1994). 즉 기독교상담은 효과적 목회돌봄을 위하여 치유와 지탱, 지도와 화해의 핵심적 기능들이 상담의 맥락을 가지고 진행되어 온 것이다. 그 외에도 마틴 루터, 토마스 아 캄피스, 존 에드워드 등 수 많은 역사적 저서들을 통해 기독교상담의 모태가 되는 목회돌봄이 성장해왔다(Roger Hurding, 2000:15~19).

그러나 목회돌봄의 과정에서 과학을 앞세운 심리학의 발달은 성경의 권위를 뒤로하고, 인간의 욕구 이해와 충족 등에 초점을 두는 등 왜곡된 상담체계를 가져왔다. 그 당시 사회가 지닌 세계관과 정신분석을 비롯하여 발전해온 행동주의, 인본주의, 초개인주의 등의 다양한 심리상담의 이론적 배경들이 반기독교적 철학과 관점들에 영향을 끼치면서 목회상담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Roger Hurding, 2000:15~19).

J.Adams는 세속심리학과 교회에 침투한 심리학을 비판하였다. 반기독교적이고 인본주의적 심리학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1970년대의 목회상담에 대한 반발로 Jay E. Adams의 성경적 상담이 시작되었다. J.Adams(1973)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이 되어주시며 인간은 그 안에서 영향을 받으나, 죄성이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는데 실패하고, 실패한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필연적 결과로서 실제적인 환경, 즉 하나님의 관점에 부합하는 상담체계나 상담 방법을 인간으로서는 개발할 수 없는 무능한 지경에 있다고 했다. 하나님을 떠나 삶을 고치시키려는 모든 인간의 노력은 근본적으로 오류이며, 하나님과 겨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와 상충한다는 것이다(김준, 2015; Lambert, H., 2012) 모우어.H.O, 폴 비츠, 칼페트릭, 게리콜린스, 래리 크랩 등 기독교상담의 이론가 및 상담자들로 인해 기독교상담이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기 시작했고 그 후로 통합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활발하게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상담의 발전은 1951 이환신 교수가 연세대에서 강의와 『목회문의학』 이라는 저서를 통해 목회상담을 발전시켜왔고, 이후 1960년대에 Carroll Wise, Paul Johnson, Seward Hiltner의 저술들이 소개되고, 1970년대에 황의영의 『목회상담원리』, 최재경의 『임상목회학』, 반피득의 『목회상담개론』 등의 출간과 함께 시작되었다(안석모, 권수영, 김필진, 박노권, 박민수, 2009, 유상희, 2019, 이호선, 2019). 그 사이 교회 내상담기관의 설립과 대학원 상담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기독교상담의 역할이 목사중심에서 성도로 확장되었다.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 다양한 형태의 상담 심리이론들을 접목하면서 활발한 변화와 적응을 거치게 된다. 상담의 관심사가 목회적 신앙상담의 모양에서 결혼 및 가정의 문제, 부부관계, 대인관계 등으로 확장되었고 1980년대 이후 대상관계 상담이론, 1990년대 인지치료의 도입 등과 함께 성장해왔다(오윤선, 2007; 류재연, 2023). 그 과정에서 목회자들은 목회상담을 교회의 신학적 전통이나 교회 공동체의 돌봄, 그리고 성서적 자원들에 기초한 교회의 중요한 기능으로 보기보다는 교회성장의 보조수단 내지는 보완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생겨났다(양병모, 2010, 359; 이호선, 2019). 이러한 기독교 상담의 모호한 정체성은 2000년에 접어들어 활발히 논의되어져왔으며(이관직, 2007),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심리학회, 복음주의협회 등을 통하여 기독교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져오고 있다. 기독교 상담은 다양한 형태와 과학과 심리학에 대한 학자들의 수용의 차이로 인하여 여러 모양으로 나뉘어 이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Eric L. Johnson(2010)은 심리학과 기독교의 관계를

다섯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제시하면서 사람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한다. 다섯 가지 관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대 정신의학과 심리치료의 세속화를 비난한 성경적 상담의 관점(J. Adams, 데이비드 폴리슨), 심리학과 신학의 두 분야가 선명히 구분한다고 가정하고 접근하는 설명수준의 관점(말콤-지브스), 설명수준의 관점보다는 현대 심리학에 더 비판적이나 동시에 현대 심리학의 학문적 업적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신학과 심리학의 학문적 통합을 주장하고자 하는 통합적 관점(콜린스, 스탠턴 존스 & 버트먼, 미너스와 마이어, 팀 클린턴), 그리고 기독교철학, 기독교신앙에서 비롯되어 심리학이론의 연구, 기독교신학의 자산을 검토함으로써 심리치료 모델의 대안적 패러다임 제시 등의 접근을 한 기독교 심리학의 관점(스티븐 에번스, 낸시 머피, 엘렌 체리, 앤드루 퍼브스, 닐 앤더슨 등),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를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조금 더 초점을 둔 변형 심리학의 관점(데이비드 베너, 개리 문, 래리 크랩, 시양 양 탄, 존 코 등)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상담의 일반상담에 대한 견해는 수용과 거부, 통합의 다양성을 가지고 발전해왔으며 그 중에서 Collins(1996)은 기독교상담에서의 통합적 측면에 대하여 과학적 심리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초월적 차원을 향해 열린 입장을 제시한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조화와 통일을 이루어간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 아래 모든 진리는 그분으로부터 성경을 통해 (특별계시), 또는 자연을 통해(일반계시) 주어지며 인간은 신학(성경에 대한 연구와 해석)과 과학(세상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해석)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간다고 보고 있다(collins, 1996).

2) 기독교상담의 정의와 영성의 문제

김용태(2006)은 기독교상담을 살펴보기 위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자체를 상담으로 보고 있다. 그 만남 속에는 자연적이면서도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과 삶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영생과 풍성한 삶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요10:10).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매우 개인적이면서 하나님의 특성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고, 그 과정 속에 시간에 따라 질적으로 변화하면서 자신을 비우는 형태로 발전한다. 결국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온전함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연결된다. 그러므로 기독교 상담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만남의 과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활동이라고 본다(김용태, 2016). 크랩(1977)은 기독교상담을 재방향성과 발달로 정의한다. 상담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돕는 활동이며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 들어서도록 돕는 것(옮아가기:move over:전이)과, 하나님의 길 아낀서 성숙하도록 매일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 옛 자기에서 새로운 자기로 바꾸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 새로운 자기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와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한다(올라가기:move up:상승). Powlison(2010)은 기독교상담이란 근본적으로 목양사역(Pastoral work)이고, 방황하는 영혼과 고통받는 양들을 돌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재교육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기독교상담은 내담자의 문제에 대하여 기독교적 세계관을 지닌 상담자의 전문적 도움 안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포스트 모던시대에 방향성과 전통성이 없이 불안한 실존적 삶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택된 영성은 지적 차원에서의 인식론적 확신보다 인간의 내면과 감성적 차원에서의 체험적 확신을 더 매력적으로 여겨지면서(최동규, 2009) 일반상담에서는 타로상담이나 명상이 상담기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전에 다루어져왔던 기독교적 영성이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슐라이마허에 이르는 시대까지 목회자 위주의 특화된 훈련 기술로서 소개되었다면 이제는 특정 종교인들에게만 국한되어 배타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영성은 오늘날 중요성과 다양성의 영역이 커지고 급격히 변화하는 세상에서 인간 경험의 강력한 하나의 차원으로 자리잡았으나 오랫동안 임상 및 훈련 사례에서 배제되어왔다.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그 중요성을 눈감고 영성에 접근하는 것을 꺼려하며 성직자와 목회자에게 맡겨온 것이 사실이다(Walsh, F, 1999). 하지만 최근 많은 연구들은 영성을 다루면서 병에 대해 잘 대처하게끔 함으로써 회복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Gomi, Starnino, Canada, 2014; Ho et al, 2016). 특히 중독 문제에 있어서도 영성이 재발방지와 회복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입증되어 온 바 있다(Shamsalinea, Norouzi, Khoshknab, & Farthoudian, 2014). 이와 같이 영성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급격히 늘어난 동시에 영성에 대한 일반적 이해가 종교를 넘어서 대중화, 세속화,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 외에서의 영성은 자연적인 속성으로 사용하고 정의내려지는것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McGinn, 1993). 이는 현대인들의 영성의 개념이 ‘내용’에 있기보다는 ‘기능’에 있기 때문이다(권수영, 2006). David Benner (2000)는 인간을 정신영적인(psychospiritual) 존재로 보며,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맺는 것과 똑같은 심리적인 과정과 기법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즉, 영적인 탐구와 심리적인 의미 추구는 상호적으로 나눌 수 없이 뒤엉켜 있으므로 심리치료에서 이 둘을 분리 시켜 다루는 것은 인위적이며 몹시 파괴적인 작업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며, 영적인 성장은 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Benner, 2002). Shafranske와 Sperry(2008)는 어떤 내담자들에게 심리치료는 영적인 질문을 시작하는 방법이 되며 이는 심리치료가 근본적인 존재론적 주제와 믿음의 문제를 다루는 배경과 과정이 되어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영성 지향 심리치료적 접근에서는 영성을 심리학적인 영역과 동등하나 대부분은 인간 고통을 경감시키고 대처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심리적 개입을 보완하는 자원이며 임상적 요인으로 본다(Shafranske, 1996; Sperry, 2004; Moon & Benner, 2004).

기독교에서 영(The Spirit)은 인간의 내적 차원과 관련되며 이는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이다. 즉 인간의 내면이 중심인 영혼이 초월적이고 궁극적 실재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역동적이 된다. 따라서 기독교 영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에 근거한다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다른 신학의 성경해석이나 교리 등의 학문적이고 행동적인 면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인간이 신앙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안에서 즉각적이고 명백하게 경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McGinn, B, 1985).

결국 기독교에서 영성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이자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망, 형성, 확장,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하고 친밀하게 되기를 바라는 바램이자 능력이다(시편 42:1). 그런데 인간이 소원하는 관계의 대상은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이시다. 파스칼의 ‘팡세’는 초월자 하나님의 자기 전달(계시)를 근거로 자연계시보다 특별계시인 성경과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을 매우 강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성서가 없다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그런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인간의 비참함도 인식할 수 있으며, 삶과 죽음도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올바른 길과 윤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인간의 이성에는 한계가 있으며 초월자의 경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현실을 통한 인식의 한계 안에서는 초월자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인간의 ‘심정’과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허용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윤영돈, 2022). 그리고 그 부르심은 우리의 타락으로 얼룩진 자아를 내려놓고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개방하는 것을 통해 기존의 존재를 확장하거나 강화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고후5:17)로의 부르심이 된다. 이처럼 자기 개방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영성이 형성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상담에서의 상담자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상담자에 의한 상담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과 인간관에 대한 이해가 형성되고 초월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개인의 영성이 형성되어진 자세가 필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례개념화

상담은 내담자의 사례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통하여 실제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상담자의 입장에서 내담자의 사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슈퍼비전, 치료적 동맹, 적합한 이론과 상담자의 전문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 중 사례개념화를 통한 상담의 전반적 이해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이다. 이는 이론과 실재를 결합시키면서 상담에서 내담자와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상담사례를 정확하고도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갖추고 있어야 할 중요한 역량 혹은 기술이 상담사례개념화(Loganbil & Stoltenberg, 1983; Martin et al., 1989)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상담을 받는 내담자들은 상담자에게 자신의 어려움과 문제들에 대한 조언과 정보를 얻고 싶어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때에 따라 상담자가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자기 편이 되기를 바랄 때도 있다(이명우, 2017).

이러한 상황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호소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신체생리, 인지, 정서, 대처행동, 대인관계 문제)를 초래하고 지속시키는 근원 및 유지요인과 지금 상담에 오게 한 결정적 사건인 촉발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봄으로 인하여 통합적이고 입체적 핵심가설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Sperry, L., & Sperry, J, 2012). 결국 잘 구성된 사례개념화는 가장 효과적인 상담 목표와 계획 수립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뿐만 아니라 상담자가 내담자와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도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하여 내담자에게 구체적이고 최대한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상담 목표와 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상담자와의 라포 형성 및 치료적 작업 동맹을 세워나가는 촉발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사례개념화는 각 이론에 따라 차이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각 이론의 철학적 근거와 건강한 인간상 그리고 상담에서의 문제 인식, 문제예의 접근법 등에 매우 큰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신역동적 접근이나 대상관계적 접근의 경우 사례개념화에 매우 적극적이며 이는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이해에 핵심적인 부분을 성장배경과 과거 경험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상담의 영역에서 사례개념화를 연구를 살펴보면 기독교상담의 특성이 반영된 사례개념화에 대한 연구(전요섭, 2017)나 Sperry와 Sperry의 사례개념화 틀을 반영한 성경적 상담 사례개념화 연구(박안나, 2021)등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독교상담이 지닌 신학적, 신앙적, 심리상담 이론적 다양성으로 인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에 대한 전요섭(2016)의 연구에 의하면 사례개념화를 통해 내담자 이해와, 내담자에 대한 설명, 내담자를 안내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며 각각의 개념에 기독교 신앙이 반영되어야 함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개념화가 다양한 상담이론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으므로 일반 상담의 틀 안에서 정리한 사례개념화요소를 수용하고 신앙적이고 영적 부분이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을 첨가하여 응용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담목표의 수립이나 가계도 작성에 부분에서 신앙적이고 영적 부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성경적 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에 대한 박안나(2021)의 연구에 의하면 성경적 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는 Sperry와 Sperry의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Len Sperry가 영적 요소를 고려한 사례공식화와 영적 기능을 임상에 적용하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됨에 근거하여 인생의 경험과 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국 사례개념화를 다룬 저서들을 살펴보면 사례개념화의 요소와 구조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설명한 후 그 후에는 심리학의 이론들이 지닌 해석의 틀을 적용하여 가설을 도출하는 과정을 보인다(이명우, 2018; 최윤미, 2019; berman, 2020). 결국 성경적 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에 사용 가능한 Sperry의 변화지원 통합요소를 살펴보고 그 적용가능성과 더불어 성경적 세계관과 인간관의 변화모델에의 반영, 성경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상담에서 호소문제의 유지요인과 유발요인을 검토하도록 권하고 있다. 특히 사례개념화는 상담자의 인지구조를 반영하여 상담에 적용되는 인지적 과정이므로 내담자의 다양한 정보의 흠어진 퍼즐을 잘 배열하고 맞출 때에 내담자 문제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상담자의 지식과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주혜선;2016; 손은정, 2001). 그러므로 사례개념화에서 상담자의 영적 인지능력을 적극 활용 할 것을 강조한다(김준, 2013).

III. 연구방법

1. 현상학적 연구방법 (Phenomenological research)

본 연구의 연구문제인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를 위한 내담자 이해와 상담의 구조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독교상담에서 상담자가 경험하는 사례개념화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현상이란 관찰자의 임의적 구성으로부터 벗어나 순수하게 나타나는 사태 그 자체를 지향해야 함을 요청받게 되고, 결국 ‘사태 자체로(Zur Sache selbst)’와 ‘무전제’의 열려있는 현상학적 태도로 연결된다 할 수 있다(이관표, 2023).

연구에 대하여 연구참여자들의 보편적이고 공통적 본질에 대하여 ‘사물의 본성을 포착하고자’(van Manen, 1990,p177; 조흥식 외, 2021. P.111)하였다. 체험의 본질과 그 구조와 어떠한 체험을 바로 그것이라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공통의 본질적 요소, 그리고 그것으로 이루어진 체험의 구조를 탐구하고자 했다.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체험의 의미를 다룰 때에, 통계적 방법을 통해 일반화를 추구하거나 법칙이나 이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체험에 대해 기술적(descriptive)으로 접근하고 그것을 풍부하게 기술하고 해석하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현상에 대한 인간과학적 연구로 볼 수 있다. 이는 철학적 현상학과 같은 관념적, 철학적 연구가 아닌 과학적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간과학적, 경험과학적 연구이다. 결국 본 연구를 통해서 어떠한 또 다른 이론을 형성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근거이론방법의 적용이나 혹은 각 사례를 하나 하나 살펴보아 참여자의 경험을 드러내고 의미를 제시하는 질적 사례분석방법의 적용보다는 다양한 입장의 기독교상담자들이 자신의 상담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사례개념화의 현상 속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부분을 드러내어 봄으로서 기독교상담의 본질과 내담자 이해의 본질, 상담을 구성하고 이끌어가는 기독교상담의 본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노력을 통해서 기독교상담의 현장에서 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 경험의 보편적인 실체를 드러내고자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주제에 가장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들의 경험을 통해 연구의 주제에 대한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을 통해 얻은 자료가 적절한가, 충분한가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현상학적 연구에 적절한 연구참여자의 수는 3-6명(Smith, Flowers, & Larkin, 2015) 혹은 3-10명 내외(Dukes, 1984)로 권장되어진다. 연구참여자의 수는 연구의 주제, 연구자의 자료

해석 및 분석에의 능숙함 차이, 혹은 심리내적 깊은 경험의 주제일 경우 등 연구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연구가 진행되기도 한다(Dukes, 1984; Smith et al., 2015). 그렇지만 연구참여자는 현상에 대한 심도깊은 경험의 유무와 반추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본 연구의 참여자는 기독교인이며, 기독교상담의 사례개념화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상담 경력자를 대상으로 모집하고자하였고 P시와 S시에 거주하는 기독교상담자들로 구성되었다. 모집은 기독교 보수교단 소속의 신학교(K대학, W대학, C대학 등)의 기독교상담교수에게 기독교상담자를 추천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학교의 관련 학과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에게 전화 및 이메일과 카톡을 사용하여 모집공고문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참여자는 총 7명으로 성별은 남성 2명, 여성 5명으로 구성되었다. 연령은 50-65세에 속하였고, 모두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상담에 헌신하여 적극적으로 기독교상담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상담가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2022년 5월부터 연구기획을 하면서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을 통해 시작되었다. 질적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에서의 진실성 확립이다. 연구설계에서 연구자는 신뢰성(credibility), 전이성(Transferability), 의존성(dependability), 확증성(conformability)의 다양한 준거를 사용하고자 하였다(Margaret Zeegers, Deirdre Barron, 2015). 또한 본 연구의 핵심질문은 '기독교상담자들이 기독교상담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사례개념화는 어떠한가?' 이다. 전문가 4인의 피드백에 따라 위의 초기 면담질문을 다음과 같은 현상학적 질문으로 변경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질문>

(도입질문) 어떻게 기독교상담을 하게 되셨나요?

(주요질문) 사례개념화를 하실 때의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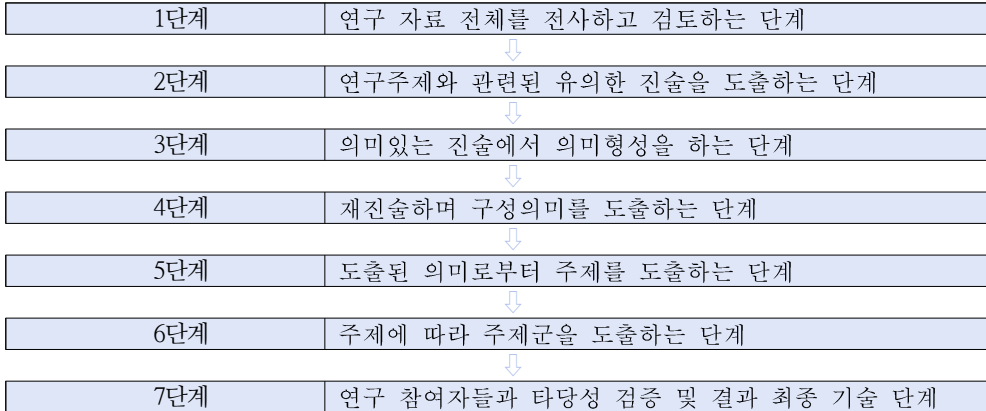
- 내담자를 이해하는 과정과 이해해 나가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시나요?
- 상담을 구조화하여 이끌어가는 과정은 어떠한고, 어떤 경험을 하시나요?

(마무리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2. 자료의 분석 과정

연구주제에 따른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 절차에 따라 분석되었다. Colaizzi의 분석은 기술적인 현상학(Descriptive phenomenology)이며, 7단계로 분석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Colaizzi는 연구 참여자가 구술한 내용에서 의미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여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 한 뒤에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김분환 외, 1999; 허경운, 2014; 오지희, 2021) 그리고 경험의 본질적 구조의 타당성에 대하여 참여자들에게 다시 확인하여(김분환 외, 1999; 허경운, 2014;

오지희, 2021) 정검을 받는 과정을 거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에 대한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을 유지하고(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연구자의 지향성을 최대한 배제하며(오지희, 201)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Colaizzi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현상학적 자료분석 과정

3. 연구의 타당성 확보 및 참여자의 윤리적 고려

국내에서 질적 연구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타당성 평가로는 Guba와 Lincoln(1981)이 있다. 본 연구의 엄격성 확보를 위해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4가지 기준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4가지 기준은 제한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네 가지 기준을 들 수 있다(김영천, 이현철, 2017). 이를 적용하여 질적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 경험에 대한 연구는 K 대학교 기관생명윤리 위원회(IRB)에서 연구심의 승인(승인번호 KU KU IRB 2022-0056)을 받고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면담을 요청하기 위하여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연구자의 이름과 소속, 그리고 연구의 주제와 심층인터뷰 형식에 대하여 설명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자발적 동의를 확인 한 후에 면담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전화나 문자, 카톡의 형식을 통하여 연구에 참여해주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인사를 드리고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편안한 시간과 장소에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면담을 원치 않을 시에는 언제든지 면담이 중지되거나 거부할 수 있음, 면담을 통해 녹음된 자료는 오직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짐, 또한 모든 정보는 가명으로 기술될 것이며 3년간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 후에는 영구 삭제됨을 설명하였다. 면담은 동의 후에 녹음되어 전사되어 진다는 것과 심층면담 이후에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이 지급됨을 설명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연구는 기독교상담자들의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현상학적 접근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분석과정은 7명의 기독교상담분야에서 연구와 실재를 겸하고 있는 기독교상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진 심층 면담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코딩하여 구성의미와 주제와 주제군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7명의 기독교상담자와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진 인터뷰 내용을 전사처리 하였다. 전사한 자료를 통해 분석된 결과 7개의 주제군, 32개의 주제, 145개의 구성의미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다음 <표1>에 제시하였다.

1. 내담자 이해의 경험에 대한 결과

기독교상담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해하는 과정은 다양한 요소들이 역동적으로 연관되어 내담자 이해의 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제군은 총 4개로, ‘내담자 이해를 위한 기본 틀’, ‘내담자 이해를 위한 요소’, ‘내담자 이해를 위한 상담자의 태도’, ‘내담자 이해하는 과정에서 상담자가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먼저 ‘내담자 이해를 위한 기본 틀’에는 ‘기독교상담의 필요성을 절감함’, ‘일반상담이 기본이 됨’, ‘관계를 중요하게 다룸’,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상담’, ‘성경을 사용함’이 있었다.

‘내담자 이해를 위한 요소’에는 ‘내담자에 대하여 보는 요소’, ‘내담자의 고통에 진심으로 동행함’이 있었다.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한 상담자의 태도’에는 ‘내담자를 존중하여 상담’,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과 내담자 사이의 통로 역할을 함’이 있었다.

<표1>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 경험에 대한 분석자료

구성의미	주제	주제군
사람의 변화를 보고 시작하게 됨	기독교 상담의 필요성을 절감함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틀
기독교인들 중에도 병든 사람이 많음		
사람들의 절망과 심리적 어려움의 심각성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일반상담의 형식으로 상담을 함	일반상담이 기본이 됨	
일반이론으로 설명해 줌/		
기본은 일반상담임		
일반상담과 달리 관계를 다룸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다룸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심리도구로 하나님과의 관계 평가		

기독교상담은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함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상담	
기독교세계관(창조-타락-구속-완성)을 적용할 수 있음		
상담자의 세계관이 연결됨		
성경적 세계관을 고민하며 상담에 임함		
일반이론을 넘어선 기독교 상담 사례 개념화		
이론을 성경적으로 재해석 함	성경을 사용함	
문제와 연관된 성경의 이야기를 소개함		
성경의 메시지로 사건을 해석함		
내담자를 전인적으로 봄	내담자에 대하여 보는 요소	내담자 이해를 위한 관점
내담자의 욕구는 영적 목마름이어서 하나님으로 채울 수 밖에 없다		
내담자를 새로운 피조물로 인식		
내담자의 문제는 가족발달사와 연관됨		
증상과 고통은 방어에서 옴	내담자의 고통에 진심으로 동행함	
사랑과 안정감을 제공함		
함께 만나서 머뭇		
고통의 길에 함께 동행함		
내담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닮은 태도로 내담자를 대함	내담자를 존중하여 상담	
내담자에 맞춰서 반응 함		
내담자의 마음의 개방성과 자세에 따라 접근함		
내담자의 문제는 내담자가 풀어낸다는 진정한 존중의 마음을 지님		
내담자의 원하는 정도와 상황에 집중하여 하나씩 상담을 진행함	하나님이 일하심	내담자 이해를 위한 상담자의 태도
내담자 안에서 움직이시는 성령님을 따라감		
내담자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으며 상담자는 그것을 믿음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경험됨		
하나님이 역사하심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림	하나님과 내담자 사이의 통로 역할을 함	
함께 일함을 경험		
문제와 관련한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을 나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함으로 간구함		
결과를 주님께 맡김	상담자가 주의할 것	
상담자는 통로 역할을 함		
하나님을 신뢰하며 상담자 개입을 최소한으로 함.		
상담자가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것	상담자가 준비해야 할 것	
상담자의 잘못된 직면이 상처가 됨		
상담자의 탈진		
신학은 큰 도움이 됨		
다양한 주제에 대해 기독교적 접근법이 정립되어야 함		
상담자는 먼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늘 돌아보는 것이 필요 함		
기회가 주어질 때 복음을 변증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함		
상담자는 상담 이론을 잘 알아야 함		

상담자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	상담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내담자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경험되는 하나님과 상담자의 관계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통해 위로받음		
모든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심		
삶 속에서 훈련시키심		
하나님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심	상담자가 소명을 따름	
상담자 기독교상담만 함		
상담자가 선택을 함		
하나님이 주신 상담의 은사를 발견 함		
상담자에게 주신 목표를 따르는 삶(소명)		
상담을 통해 복음이 전해짐		
하나님이 부르심에 확신		

2. 기독교상담 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결과

연구참여자들의 상담 과정에서의 경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제군은 총 3개로 ‘상담의 시작’, ‘작업단계’, ‘마무리단계’로 구분되었다. 먼저 ‘상담의 시작’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함’, ‘합의목표와 영적 목표를 세움’, ‘감정을 통해 문제를 탐색’이, ‘작업단계’에서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알아차림’, ‘내담자의 패턴, 방어와 전략을 다룸’, ‘생각의 오류를 찾도록 도움’, ‘실존적 주제를 통해 진리를 탐색하도록 도움’,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재해석함’, ‘하나님 관점의 새로운 생각으로 내면화’, ‘하나님을 경험함’, ‘하나님을 인식함’, ‘방어를 회개하며 패턴이 바뀜’이 있었다. ‘마무리 단계’에는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됨’, ‘내담자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함’, ‘성화로 향한 새로운 패턴의 삶을 연습’으로 나타났다.

<표2> 기독교상담 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결과

구성의미	주제	주제군
영적부분을 포함한 가계도분석	내담의 문제를 파악함	상담의 시작
문제, 상처가 되는 내담자 경험을 살펴봄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		
내담자가 좋은 목표로 합의함	합의 목표와 영적 목표를 세움	
상담방식에 대해 내담자의 동의를 받음		
상담자의 영적 목표를 합의된 목표의 이면에 둠		
내담자 감정을 충분히 떠오르게 하고 회상하게 함	감정을 통해 문제를 탐색	
내담자의 감정-경험-생각을 파악		
핵심감정(정서)과 연관된 욕구를 파악		
내담자가 내면의 중심 경험과 맞는 시간을 가짐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알아차림	작업 단계
내담자 자신의 방어를 깨달음		
내담자가 자신의 오류(사실 또는 인식)를 깨달음		

내담자의 문제를 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확인	내담자의 패턴, 방어와 전략을 다룸	마무리 단계
내담자의 방어를 상담자와 대화로 파악함		
내담자의 생존전략으로 인한 곤란을 다룸		
내담자의 노출된 신경과 같은 아픔이 패턴임		
내담자의 숨겨진 핵심 동기, 믿음, 자동적 사고 찾기	생각의 오류를 찾도록 도움	
내담자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찾기		
내담자의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상처가 된 오해를 찾기		
비기독교인에게 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던짐	실존적 주제 통해 진리를 탐색하도록 도움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 진리 다룸		
내담자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룸		
하나님에 대한 내담자 경험을 질문 통해 확인함		
문제를 재해석하도록 도움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재해석함	
욕구와 연관된 내담자의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작업을 함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류가 있는 생각을 바꾸는 교육을 함	하나님 관점의 새로운 생각으로 내면화	
재해석 후 영적 부분에 대한 내면화 작업		
자책감 및 신앙의 고민 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룸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됨	하나님을 경험함	
내담자가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됨		
내담자가 하나님의 도움의 필요 인식	하나님을 인식함	
내담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게 됨		
내담자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 뜻을 알게 됨		
방어에서 회개하며 죄의 문제에서 돌이킴	방어를 회개하며 패턴이 바뀜	
방어를 내려놓고 패턴이 바뀜		
패턴 버리고 순종결심(선택)		
말씀의 강력한 능력이 임함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됨	
예수님 만이 완전히 회복되고 자유롭게 하심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 깨닫고 변화가 됨	내담자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함	
내담자가 고통이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감사로 바뀜		
내담자가 돌이킴으로 하늘나라 경험		
내담자가 자유를 경험		
주인이 바뀜	성화로 향한 새로운 패턴의 삶을 연습	
대화법 연습, 의사소통 연습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프렉티스를 계속 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연습(전환, 새로운 패턴)		
성화되어지고 생활이 정돈이 됨		
내담자가 방어를 버리고 소명으로 살게 됨		
상처가 나아 상흔이 됨: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감		

V. 논의

본 연구는 기독교상담자들의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 경험을 통하여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의 본질적 구조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례개념화는 상담자가 내담자와 호소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얼마나 상담을 잘 정리하여 전략과 방향을 잘 설정하였는지 등 상담의 과정에 따른 구조 등을 다루는 것이다(이윤주, 2016; 이명우, 2004; 2005). 그러므로 상담의 진행에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례개념화의 요소는 상담이론이나 학자들마다 주장이 상이하고 다양하여 일치되거나 통일된 것이 없다(전요섭, 2017). 또한 기독교상담에 대한 입장도 학자들마다 신학과 심리학을 보는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김용태, 2018; 장동진, 2015).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독교상담의 복음주의적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독교상담적 사례개념화가 무엇인지 그 본질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특정 상담이론보다는 범이론적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법과 심층면접을 통해 기독교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에서의 경험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10년 이상 기독교상담에 대한 연구와 교육, 실전을 담당해온 7인에 대한 심층면접에 근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총 104개의 구성의미, 27개의 주제와 7개의 주제군을 도출하였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사례개념화를 위한 내담자 이해에서의 경험이 어떠한지와 상담의 과정에 대한 경험이 어떠한지의 결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내담자 이해를 위한 경험은 52개의 구성의미와 12개의 주제, 그리고 4개의 주제군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상담의 과정에 대한 경험은 52개의 구성의미와 15개의 주제, 3개의 주제군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기독교상담자의 사례개념화 경험에 대한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1. 상담자의 내담자 이해의 경험은 어떠한가?

기독교상담자들이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하여 경험되는 결과는 크게 4가지로 나뉘었다. '내담자 이해를 위한 기본 틀', '내담자 이해를 위한 관점', '내담자 이해를 위한 상담자의 태도', '내담자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경험되는 하나님과 상담자와의 관계였다.

1) 기독교상담에서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는 틀이 있다.

기독교상담에서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기본틀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상담의 필요성을 절감함', '일반상담이 기본이 됨', '관계를 중요하게 다룸',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상담', '성격을 사용함'이다.

먼저, 기독교상담의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참여자들이 기독교상담에 헌신한 이유는 아픈 이들을 돕고자 하는 열정과 이타심에서 우러나오는 동기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타적 동기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근거¹⁾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관련된다. 김세운 외(2013)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는 미래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미 예수님 자신을 통해 실현된 개념이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에 학자들이 합의했다고 한다. 즉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하여 예수께서 ‘출범’과 ‘완성’의 두 구도로 동시에 설명하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히브리서 6장 5절의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올 세대의 능력을 지금 여기에서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김세운외, 2013:239-40). 즉 기독교상담자는 내담자를 대함에 있어 한 영혼의 회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돕고 현재 그 나라의 임하심을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동참함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볼 수 있다(Johnson, E. L.1997).

둘째로 일반상담이 사용이 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사례개념화를 할 때에 이미 연구되어진 일반상담의 특징을 사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상담의 진행과정에서도 일반상담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경험되었다.

셋째, 기독교상담이 관계를 중요하게 다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원래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소통) 것이며 실제로 내담자의 하나님과, 타인과의 관계,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직면하여 각각의 관계성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독교상담자에게 올바른 방향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는 곧 세계관의 변화를 통한 본질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박윤정, 2012). 여기서의 본질적 변화는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는 일반상담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이러한 차이를 곧 세계관의 차이로 할 수 있다(박윤정, 2012). 이러한 점에서 본연구의 참여자들의 기독교세계관을 근거로 내담자를 이해하고 상담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관에서 볼 수 있는 독특성과 연관되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에서 볼 수 있는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성과, 태초에 인간인 아담과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또 예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하신 관계적 측면들에 대한 가치들이 상담에서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넷째, 기독교상담에서 기독교세계관은 사례개념화를 위한 근거가 된다. 게리콜린스(1993)은 누구나 상담을 할 때에는 자신의 전제, 가치관, 신념, 견해를 가지고 시작하며 이것이 바로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으로, 인생을 이해하는 틀이며, 사고와 행동의 많은 부분을 빚어 내기에 기독교상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상담이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한다(Collins.

1) 가장 큰 계명: 마가복음 12:29-3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G.R.,1993;38-39). 기독교상담에 있어, 상담자는 상담에 있어 기본이 되는 기독교세계관(강연정,2019, 박윤정, 2012)의 창조-타락-구속-완성에의 이해를 기본 틀로 내담자를 이해하고 상담의 구조에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창조 타락 구속'의 기독교세계관은 월터스(Albert M. Wolters)와 고힌(Michael W. Goheen)를 통해 알려진 개념으로서 '세계관'이란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 가지는 근본적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로 정의할 수 있으며, 삶의 방향성, 인도하는 역할, 즉 의식하지 못하고 분명히 설명할 수 없을 때에도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 가지는 근본적 신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이러한 역할은 나침반, 약도 등으로 비유된다. 실제로 상담에 있어서 사례개념화가 내담자와 그 문제에 대한 이해, 또한 상담을 이끌어갈 전략과 방향성의 정립이라는 개념으로 크게 나뉠 때에, 이미 기독교상담자의 상담에 기독교세계관이 근거로 자리잡는다면, 창조-타락-구속-그리고 완성의 틀은 상담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방향성과 인도자, 지도, 나침반으로 불리우는 공통점을 지닌 두 개념이 내담자의 삶을 재해석하고 방향성을 다시 확립하는 중요한 순간에 기독교세계관은 무엇보다도 명확한 방향성과 구체적 지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월터스와 고힌(2007)이 정리한 창조-타락-구속-완성의 개념을 살펴보면, '창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흠 없이 선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일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기독교상담자들은 내담자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며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속해졌을 때 진정한 생명력을 누릴 수 있음을 전제할 수 있다. 즉 내담자에 정체성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적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타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창조의 전 세계가 죄로 오염되는 대재난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다. 특히 원래의 선한 창조 질서인 '구조'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아담 이후 죄의 질서가 세상에 들어와 선한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향한방향을 뒤틀어 놓았다는 것이다. 결국 창조 때의 조화로움과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상태에 대한 명확한 이해의 기본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실이나 왜곡으로 보게 되며, 다양한 진단과 평가의 과정을 통해 내담자 문제를 인식하게 된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져있는가? 그리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상태가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상담자는 내담자가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을 함께 하며 주님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내담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어져있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인해 얼마나 망가지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이시며 그 역할을 상담자가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내담자는 자신의 고통과 곤란의 상황을 알아차리고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기 시작하게 된다.

'구속'은 방향이 뒤틀리고 타락한 세상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회복된다는 것을 말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과,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영역은 새롭게 될 것 이라는 선포와 기대이다. 여기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정한 거룩의 회복을 의미하며, 이것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점진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상담의 과정을 통해 고통의 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해 수용된 존재임에 대한 경험과 진정한 감사와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담자는 새로운 삶의 패턴과 생각의 패턴, 그리고 부정적 감정의 패턴에 대한 점검 등이 힘있게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창조, 타락, 구속으로 표현되는 기독교 세계관의 큰 틀은 인간의 인생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작고 크게 반복되어진다. 구원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지는 것이며 구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원으로 인도되는 것이다. 인간이 수행하고 있는 일은 창조 때에는 온전했으나, 타락 이후에는 뒤틀려졌으며, 구속의 단계에서는 일의 원형이 원론적으로는 회복된 상태에서 완전한 갱신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의 우리는 타락 상태로 일그러지고 파괴된 상태의 삶 가운데 던져졌으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며 더욱 온전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간다(이윤석, 2020).

기독교 세계관이 세상 전체의 전반적인 특징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면, 개혁주의 인간론에서 인간에 초점을 맞추어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이윤석, 2020). 후크마 (Anthony Hoekema, 1913-1988)는 ‘개혁주의 인간론’에서 인간의 상태를 네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최초 인류가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인 ‘본래적 형상(the original image)’이다. 인간의 본래적 정체성과 회복 후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이러한 희망적 상태로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내담자에게 긍정적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은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의 구조적 측면이 변질된 ‘변질된 형상(the perverted image)’이다. 내담자와 그 고통과 어려움과 죄의식에 대하여 임상적, 상담적 접근을 통해 치열하게 다루게 되며, 사례대담화에서 내담자의 이해 부분에 가장 중요한 내담자의 이해 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또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만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새롭게 된 형상(the renewed image)’이다. 내담자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새롭게 살펴보고 회개함과 감사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는 장차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하고 더욱 완전한 회복을 누리는 ‘온전케 된 형상(the perfected image)’의 상태이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 혹은 상담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에 친밀함을 회복하면서 순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온전함은 이후 예수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다섯째, 말씀의 사용을 통해(강연정, 2019, 강용원, 2013) 내담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크랩(1987)은 기독교상담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계시로 인정하는데 비해 실제 상담에서는 성경을 통찰력과 도움을 주는 자원 정도로만 여길 뿐 권위있고 상담의 충분성을 지닌 대상으로 보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성경을 통해 상담의 목적과 방법을 결정하기를 주장한다(Crabb, L. 1987;37-40). 심리학의 입장과 성경적 계시의 입장 사이에는 세계관의 갈등이 있으며(박윤정, 2012) 상담자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지도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할 것인가는 어떠한 가정을 받아들이나에 따라 달라진다 볼 수 있다. 이 때 사용되는 것을 연구참여자들은 성경으로 보았다. 일반상담의 경우, 즉 성경을 인간행동의 절대 원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의 경우,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심리학 중심주의, 자아중심주의, 반기독교적 사고들이 될 수 있다(정정숙, 2013). 그러나 상담자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계시와 일반계시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심리학을 검증하고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정정숙, 2004). 이와 같이 말씀을 사용하고 또 기준으로 삼는 것은 돕는 상담사나 내담자에게 유익하며 이러한 성경의 사용은 일반상담과 차이를 가져온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아모스 7장에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이들을 심판하시는 말씀 속에서도 등장하는데, 여기서 다림줄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이라 볼 수 있다(아모스7:7-9). 하나님(말씀, 계시)이 다림줄이 되어 우리의 삶에 내리워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집은 반석 위에 지어진 침처럼 폭풍우가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며 안정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기독교세계관을 근거로 하고 성경을 사용하여 상담했을 때 상담의 효과가 일반상담에 비하여 훨씬 효과적이고 극적이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2) 내담자를 이해하는 관점에 대하여

본 연구는 내담자를 이해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일반이론에 근거한다는 결론²⁾이 나왔다. 하지만 추가로 제시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기독교적 인간관이다. ‘내담자를 전인적으로 보는 것’, ‘내담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내담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 ‘내담자의 증상과 고통은 방어’-곧 인간이 자신의 삶에 왕이 되어 통제하려는 죄의 형태-에서 온다는 것, ‘내담자의 욕구는 영적 목마름으로서 하나님으로 밖에 채울 수 없다는 것 등은 기독교인간관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의 욕구가 영적 목마름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동기(욕구)가 그 마음을 지배하는 우상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간의 마음은 항상 예배의 대상을 찾고, 하나님이 없을 때 그 대신 욕망, 명예, 관계, 두려움 등의

2) 이제까지 사례개념화에서 내담자를 이해하는 요소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이론적 배경에서 참고 가능

우상을 찾고 의지하게 된다(겔14, 김준, 2013). 그러므로 인간의 욕구(동기)를 파악하여 잘못된 우상을 버리고, 예배의 대상인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하심을 구하는 것은 기독교상담의 사례개념화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다.

3) 내담자를 이해를 위한 상담자의 태도

본 연구가 다른 연구와 차별되는 점은 바로 내담자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겪는 상담자의 태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소통) 부분에 대한 경험이 이야기되었다는 점이다.

첫째, 내담자를 이해하는 상담자의 구체적인 태도에는 '내담자에 대한 존중'은 내담자 중심적이고 라포를 통한 신뢰성 형성 및 적극적 작업 동맹을 맺는 일반상담의 초기 상담에서의 관계형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기독교상담자의 내담자에 대한 존중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다음에 언급되어질 상담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험과 상담자와 소통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기반한다. 즉 기독교상담자는 내담자의 개방성과 마음에 맞춰, 내담자의 결정과 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내담자의 속도에 맞추어 상담을 세밀하게 진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상담자는 하나님과 내담자 사이의 통로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삼중관계로서의 하나님과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상담의 현장 속에서 내담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었다. 게리콜린스(1993)는 상담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정리하면서 성령이 불신자들 안에서 하시는 일과 신자들에게 하시는 일을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성령 보혜사를 사용하시는데, 이 일이 일어나면 사람은 중생의 체험과 함께 '성령으로 거듭남'이 찾아온다(요 3:3-5), 실제로 능숙한 기독교상담자라 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신자를 설득하여 예수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없으며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한편 하나님은 신자들을 인간 도구로 사용하시어 복음이 전달되게 하신다. 또한 성령이 신자들에게 하는 일에는 영적 성숙(성화)의 과정을 허락하시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고후3:18)'을 이루어가신다. 이 또한 죄로 물든 세상에 살고있는 한,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으나 성화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풍요롭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보다 나은 관계들을 가질 수 있게 만들고, 우리가 살고있는 이 세상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유와 영적능력(고전 2:4, 고후 3:17, 엡 3:16)을 보다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

셋째, 이 모든 상담의 과정에서 '하나님과 내담자 사이의 통로 역할'을 위하여 상담자는 자기 개방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심에 대한 간구함이 있었다. Miller(2005)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며 유한한 존재이면서 모순적이고 부분적 존재임을 알 때에 타인을 배려하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이를 받아들인 영적 존재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탁이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김용태,2018; 80-82). 그러

므로 상담자는 하나님과 내담자 사이의 대행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인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에 근거하여 내담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 근거하여 상담에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 안에서 상담자는 하나님과 내담자 사이의 전문적인 안내자, 통로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전도서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곧 하나님의 '때', 딱 찬 시간, 혹은 알맞은 시간, 정한 때를 일컫는 '계절(카이로스)'가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 즉 카이로스적 탄생으로 인간 역사의 크로노스적 연대기에 신기원을 이루셨다(민영진, 1999).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때에 우리를 완성하실 것, 그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완성하신 것을 믿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내담자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내담자가 곤난의 상황에서 나아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도록 돕는 것이다.

넷째, 내담자를 이해하고 그에 곤란에 대처하기 위하여 상담자가 신학적으로, 심리상담적으로, 복음을 변증하는 면에서, 또 영성적인 측면에서도 다룰 수 있도록 '상담자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내담자가 신앙적이거나 영적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이것을 다룰 수 있는 것은 기독교상담자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는 일반상담에서는 이해가 안되고 다룰 수 없으므로(김용태, 2018) 기독교상담자는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4) 내담자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경험되는 하나님과 상담자와의 관계

연구참여자들은 상담의 과정 속에서 내담자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룰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본인의 상태를 점검받거나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께 위로받거나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등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역동적인 관계성을 경험하고 있었다. 권수영(2006)은 상담현장에서 예수그리스도의 현존³⁾으로 말미암는 상담자의 '하나님 공감'이 내담자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의 실재를 인식하도록 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내담자가 하나님을 자신의 자기대상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상담자가 일종의 '중간대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중간대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이재현, 2020). 그러나 본 연구에서 경험된 하나님과 상담자의 관계는 단순히 내담자에게 중간대상 이상의 1:1의 친밀한 관계로 보인다. 상담자들은 상담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일터에서 충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소명의 자리였다.

3) 빌립소서2:5-11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비록 상담의 과정에서 연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상담자가 상담의 장면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도 매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Coe & Hall(2010)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상담자가 자기의식과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뿐 아니라 주체적이며 핵심이 된다고 한다.

2. 기독교상담의 과정의 경험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상담의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경험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사례개념화를 통해 상담에서의 목표를 설정하고 내담자의 약점과 장애물, 강점과 전략의 설정 등이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도 통합적 일반상담에서의 과정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유진(2021)은 숙련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통합적 사례개념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상담의 시작단계에서 내담자의문제와 정서적 반응을 고려하고, 사례개념화를 위하여 호소문제를 다루며 핵심욕구와 패턴을 파악하는 것, 문제의 다면적 평가와 이론의 확립, 핵심 내러티브 탐색과 자원 및 강점에의 관심, 역지사지의 태도와 명료화 정보의 통합 등을 도출해 냈으며 본 연구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상담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세우고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내담자와의 합의된 목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 역동과 패턴을 다루는 것과 내담자를 중심으로 관계성안에서 이론적 틀에 따라 상담자가 자신을 성찰해 나가면서 상담을 진행하는 등 그 결과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초기에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파악하고 합의된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내담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 작업단계에서 정서와 생각의 오류를 다루고 핵심정서, 동기, 패턴, 방어를 다루는 면도 상담자의 선호에 따라 사례개념화하는 일반적인 상담의 경향과 동일하다(Lambert, Garfiddle, & Bergin, 2004, Berman, P.S, 2015). 이러한 결과는 박안나(2021)의 성경적 상담의 사례개념화에 대한 고찰과도 거의 유사하다 볼 수 있다. 특히 Speery와 Sperry의 모형은 다른 사례개념화 요인연구보다 좀 더 명확하고 다양하게 내담자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면에서 사용가능한 모델이며 특히 유발요인과 유지요인의 분석부분을 성경적 인간관과 변화모델, 혹은 성경의 사용을 보완하여 사례개념화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외에 신학적이고 신앙적으로 해석될 만한 사례개념화 요소들이 제시되어지고 있다

1) 상담의 시작

기독교상담의 과정에서의 경험에 따라 결과를 구분해 보면, 상담이 시작될 때에는 ‘내담자의 고통에 진심으로 동행함’,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함’, ‘합의 목표와 영적 목표를 세움’, ‘감정을 통해

문제를 탐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상담의 시작단계에서 내담자의 고통에 진심으로 동행하는 상담자의 태도는 일반상담에서 라포형성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사실은 라포 형성 그 이상의 진실한 공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내담자의 고통에 진심으로 동행하는 상담자들의 태도와 진실성으로 인하여 고통의 자리에 있는 내담자들이 자신의 고통과 외로움, 슬픔 등 자신의 삶에서 떼어내고 싶고 부인하고 싶은 상황에 대한 수용을 간접 체험한다고 여겨진다. 상담에서 수용은 내담자가 자신이 경험하는 고통과 괴로움에 적응적으로 대처하도록 돕는 주요한 수단인데 상담초기에 내담자는 자신이나 환경에 대한 수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담자가 그 고통의 이야기 속에 함께 해줌을 통해 타인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수용됨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기독교상담자가 내담자와 진심으로 함께 있어줌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그의 통제권 안에 맡김(황선미 외, 2016)을 경험한 상담자들의 경험에 의거한다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께 맡김의 태도와 수용의 태도 안에서 내담자와 함께 함의 태도가 반영된다 볼 수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내담자에 대한 기본적 사랑과 안정감의 제공, 시명으로서의 상담에 임하는 태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닮은 태도로 내담자를 대하는 태도 등은 실제로 매우 높은 윤리성을 지녔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내담자가 기독교상담의 방식에 동의했는가의 여부'이다. 최근 국내 철학계는 '철학상담'의 제도화를 노력하면서 심리상담의 기존 흐름(정신분석, 행동주의, 인본주의 등)에 철학을 상담기법으로 수용(실존주의치료, 의미요법,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등)함으로써 철학상담을 포괄하려는 시도(김옥진, 2012)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윤리상담적 접근을 하려는 시도(윤영돈, 2022)에서도 상담에서의 기본전제인 '비밀보장'과 '사전동의'를 중심으로 윤리적 쟁점을 해명하고 있다. 모든 상담이 상담자의 이론과 적용에 의해 방향성이 설정되어지고 발전하듯이 기독교상담도 상담자의 기독교세계관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용되고 중심이 되어지고 있으며 기독교상담자로서의 명확한 정체성을 가진 상담자일수록 더욱 내담자에게 기독교상담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내담자의 동의 안에서 자유롭고 열정적으로 상담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본주의적 상담은 그 잣대가 죄성을 지닌 인간에 달려있으므로 매우 불안정하나 기독교상담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이다. 그래서 내담자의 처한 상황과 문제에 대한 매우 창의적이면서도 근본적이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더욱 안정감 있는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2018)⁴⁾를 검토해 보면 전문성, 성실성, 사회적 책임 등의

4) 한국상담심리학회 (krcpa.or.kr)

나. 성실성

상담심리사는 자신의 신념체계, 가치, 제한점 등이 상담에 미칠 영향력을 자각해야 한다.

다. 상담 기관 운영자

부분에서 상담자가 자신의 신념, 가치, 능력, 한계 등에 대한 역량과 영향력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과 상담활동에 있어 내담자의 권리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기독교상담자들의 존중의 태도와 진심으로 함께 동행함의 태도는 내담자의 권리와 복지를 우선하는 태도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내담자에게 기독교상담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고 시작하는 부분이나 내담자가 먼저 기독교적 입장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할 때에 내담자의 필요와 권리에 따라 상담이 진행 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상담의 시작부분에는 내담자의 감정을 다루고, 현재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합의 목표와 영적 목표를 세우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은 오랜 상담적 연구, 교육, 실제의 경력(10년이상)을 지닌 복음주의적 상담자들이며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 신학적이고 영적 접근이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복음주의는 복음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한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고, 우리는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중심에 두는 것이다. 예수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 사건으로 인한 죽음과 부활, 이를 통해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중심으로 둔 신학이자 신앙이라 할 수 있다.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에서 강조되는 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은 내담자가 복음으로 생명을 소유하는 일(구속)과 그 생명이 성장하는 일(성화)을 위한 제자화의 실천적 사역의 한 방편이다. 또한 죄와 성경에 대한 이해와 적용으로서 영적자원을 활용한 영혼돌봄과 영성형성으로서의 영적지도(Spiritual direction)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세계관으로 모든 상담적 접근을 한다(안경승, 2012). 결국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통치 되어질 때에 비로서 근본적이고 온전한 변화를 이르게 되며 기독교상담자들은 이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내담자와 만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의 목적이 일반상담에서 제시하는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명확히 파악하여 도와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이면에 상담자가 영적 지도의 방향성을 함께 설정하여 내담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루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보다 내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이자 근본적 접근법이라 할 수 있겠다. 기독교상담은 일반상담에서 다루는 내담자의 왜곡된 부분(abnormal)의 정상(normal)화에서 더 나아가 영적지도를 통해 그 이상의 영적 성숙과 변화로 나아가게 하는 유용한 접근이다(Moon, G. W., & Benner, D. G., 2004)고 본다.

2) 작업단계 : 전인적 접근-내담자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순종함의 결단과 사명으로의 삶)를

상담기관 운영자는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상담활동을 관리 감독함에 있어, 내담자의 권리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영적 측면에서 다룬다는 점에 대하여

본 연구는 상담이 이루어지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상담의 과정을 발견하여진 바 있다. 그래서 상담의 시작단계, 작업단계, 그리고 마무리 단계의 구분이 있었다. 그 속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내담자의 감정을 통해 핵심생각과 생각의 왜곡을 점검하고 더 깊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다루며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잘 알고 회개하며 순종과 사명에 이르는 작업단계가 있다. 본 연구는 작업단계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알아차림’, ‘내담자의 패턴, 방어와 전략을 다룸’, ‘생각의 오류를 찾도록 다룸’, ‘실존적 주제를 통해 진리를 탐색하도록 도움’,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재해석 함’,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식함’, ‘방어를 회개하며 패턴이 바뀜’의 과정이 있다. 이러한 과정은 위에서 창조-타락-구속-완성의 구조, 본래적 형성-변질된 형성-새롭게 된 형성-온전케 된 형성의 구조, 폴트립의 성경적 상담모델, 성경적 상담의 8단계, 이명우(2004)의 상담사례개념화연구결과, 그리고 장유진(2021)의 숙련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 및 상담 개입전략 수립관련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 상담과의 차이점이라면 기독교상담에서의 상담이 좀 더 영적이며 내담자의 근본적인 동기와 패턴, 생존전략적 부분을 다룬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담이론에 따라 감정만 강조되거나 이성만 강조되거나 행동만 강조되어 전략이 세워지는 것이 감정과 이성과 행동과 영적인 전인적 접근이 이루어진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인간이 가진 전인성이 온전히 사용되고 모든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서 자신을 괴롭혀왔던 모든 방어와 왜곡된 패턴과 삶에 잘못된 방향성을 지니고 어그러진 전략들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고, 그 영혼의 쉼을 얻어 자유를 누리는 과정이라고 보여진다. 신학을 인간의 삶에 작용하는 방향성(orientation for human life)이라고 본다는 기독교상담은 내담자와 상담자가 함께 그 삶의 모든 방향성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결코 단순한 인간적 접근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며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뤄지는 회복의 역사가 주관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 가지 더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내담자와 실존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즉 믿는 성도들과의 상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점검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인간의 존재, 목적, 사명 등을 다루면서 실존적 주제를 다룬다. 또한 믿지 않는 내담자와는 삶과 죽음, 인간의 한계와 진정한 삶의 의미를 다루면서 기회가 주어질 때 복음을 소개하여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다룰 뿐 아니라 시야를 확장시켜 영혼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역할에까지 이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심리학의 입장과 성경적 계시의 입장 사이에는 세계관의 갈등이 있으며 상담자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지도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할 것인가는 어떠한 가정을 받아들이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문제에 대하여 게리콜린스(1993)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정리하면서 성령이 불신자들 안에서 하시는 일과 신자들에게 하시는 일을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성령 보혜사를 사용하시는데, 이 일이 일어나면 사람은 중생의 체험과 함께 ‘성령으로 거듭남’이 찾아온다(요 3:3-5), 실제로 능숙한 기독교상담자라 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신자를 설득하여 예수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없으며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한편 하나님은 신자들을 인간 도구로 사용하시어 복음이 전달되게 하신다. 또한 성령이 신자들에게 하는 일에는 영적 성숙(성화)의 과정을 허락하시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고후3:18)’을 이루어가신다. 이 또한 죄로 물든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으나 성화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풍요롭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보다 나은 관계들을 가질 수 있게 만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유와 영적능력(고전 2:4, 고후 3:17, 엡 3:16)을 보다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든다. 결국 실존적 주제의 언급과 다름을 통해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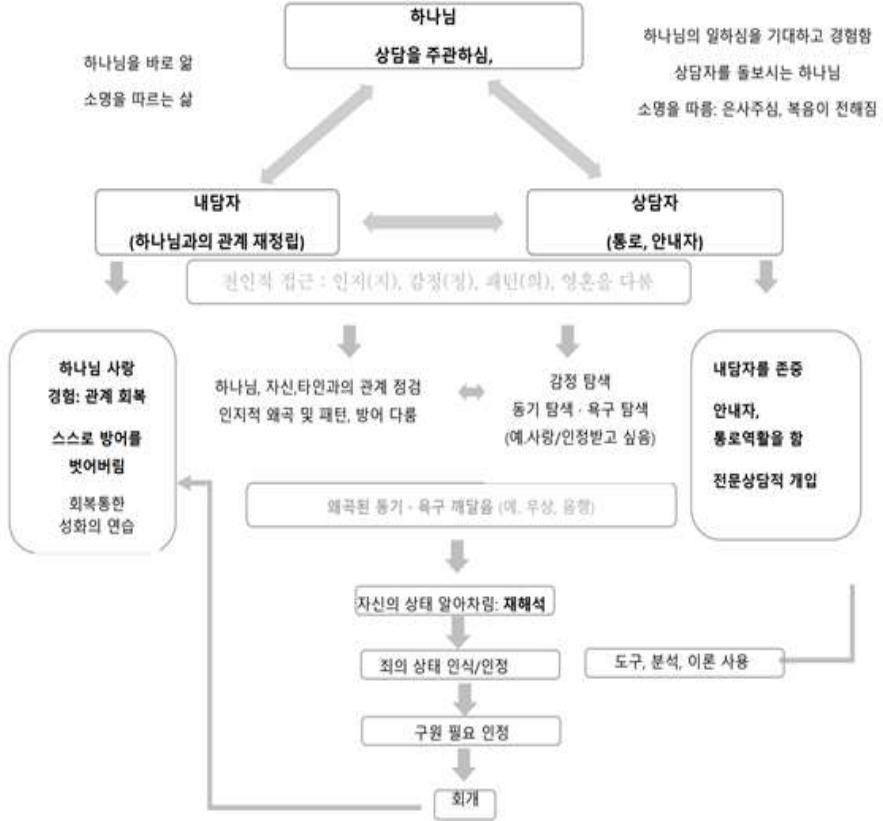
3) 마무리 단계: 방어를 회개하고 패턴을 바꾸며 성화의 삶으로 나아감에 대하여

본 연구를 통해 방어를 회개하고 패턴을 바꾸며 성화의 삶으로 나아감의 변화가 실제로 기독교 상담의 장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단기상담이나 내담자의 준비 상황에 따라 상담의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독교상담에서 성경의 사용과 기독교세계관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비교 분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어두운 인간의 상황과 어두운 마음에 작용하면서 죄가 발견되어지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실제로 삶의 관점과 방향성을 재정비할 때에 성화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회개와 돌이킴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므로 이것을 인위적으로 상담자가 알려줄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회심의 역사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탐색해 나가고 살펴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랑 그 자체이신지를 깨닫고, 자신의 생각의 왜곡과 상처들을 치유받으면서 자연히 자신이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려던 옛 습관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과정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깨달음, 자신의 죄에 대한 돌이킴, 왜곡된 욕구와 동기와 생각을 회개함이 클수록 강력한 변화가 수반되어지고, 상담자들은 그러한 변화를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그 능력에 감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여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내담자의 소명으로 이어져서 하늘나라를 위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논의와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상담과정에서의 경험 구조>
 상담의 시작 - 작업단계 - 마무리단계
 도움요청, 내담자 동의 - 성경적 재해석, 돌이킴, 하나님 인식 - 방어와 패턴 바꾸기 연습, 성화

<내담자 이해를 위한 상담자의 태도 및 경험되는 하나님>



< 내담자 이해를 위한 기본 틀 >

기독교 세계관	일반 상담	성경
	기독교인간관	

< 그림 2.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 모형도 >

<참고문헌>

- 강용원 “기독교상담의 성격과 구성”,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서울: 기독교, 2004): 378-81.
- 강용원 (2004). 기독교상담의 성격과 구성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서울:기독교.
- 강용원 (2013).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의 전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5, 37-73.
- 강용원, “기독교상담의 성격과 구성”,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서울: 기독교, 2004): 378-81.
- 강용원 (2012). 목회적 과제로서의 통전적 예배에 관한 구상 - 예배와 목회상담의 접점. 복음과 상담, 18, 76-105.
- 고기홍 (2005).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 개발. Korea Journal, 13(1), 3-15.
- 고기홍 (2005).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 개발. 청소년상담연구(학술지), 13(1), 3-15.
- 고재성, 정철영(2006). 대학 진로서비스 평가 준거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8(4), 141-160
- 기독신문(2020.01.09.).<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960> [신년 기획] 2020, 리포트 ②2020 ‘우리는’(검색일. 2022.10.28.)
- 기독일보(2020.10.21.).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5994#share> 20대의 70%가 코로나블루 전도의 시대. (2022.10.28. 검색).
- 김경미, 강연정 (2018).기독교상담자의 정체성과 딜레마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복음과 상담, 26(1), 7-32.
- 김계현, 이운주(2002).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수행능력과 상담 경력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257-272.
- 김귀분 외(2005). 질적연구 방법론. 서울: 현문사.
- 김미경 (2008).기독교상담자와 영성.복음과 상담,11(),165-185.
- 김미숙 (2006). 기독교상담에 나타난 통합운동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 김미희, 이동형, & 한정규. (2018). 격려집단상담이 우울한 일반고 여학생의 무조건적 자기수용, 타인수용 및 우울증상에 미치는 효과. 교육문제연구, 31(1), 59-86.
- 김성재, 오상은, 은영, 손행미, 이명선(2007). 질적 연구로서의 포커스 그룹. 서울: 군자출판사
- 김수연 (2006). 기독교상담자 훈련을 위한 자기상담의 활용. 복음과 상담, 6, 61-87.
- 김수연 2006). 기독교상담자 훈련을 위한 자기상담의 활용. 복음과 상담, (), 1-87.
- 김수현 (1997). 정신역동적 사례공식화: 계획공식화 방법과 개별적 갈등공식화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129-155.
- 김소연, 정익중, & 김재연 (2023). 코로나 19 발생 전후 청소년의 우울,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 부정적 또래관계 간의 종단적 상호영향관계. 한국사회복지학, 75(1), 59-84.
- 김영천 & 이현철 (2017). 질적연구 열다섯가지 접근, 아카데미프레스.
- 김옥진 「심리 상담과 철학 상담: 오해와 딜레마」, 『상담학연구』 13권 5호(한국상담학회, 2012), pp.2417-2428
- 김용태 (2018). 기독교상담의 이해와 원리. 학지사. 서울
- 김용태 (2006). 통합 의 관점 에서 본 기독교 상담학: 배경, 내용 그리고 모델들. 학지사.
- 김재환 (2022). 약물중독상담 통합적 이론 사례개념화 모델에 관한 고찰. 인문사회 21, 13(6), 969-982.
- 노철우 & 전요섭 (2011). 인지왜곡으로서 과잉 일반화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상담 방안. 신앙과 학문, 16(1), 103-130.
- 문수정 (1999). 상담수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 : 상담자의 경력수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영진 (1999). 권두언-카이로스와 크로노스.기독교사상,43(12), 2-6.
- 박미라 (2021). 기독교교육과 상담의 담론지형과 쟁점연구. 기독교교육 논총, 67(), 195-227. 10.17968/jcek.2021..67.006
- 박미라 (2021). 기독교교육과 상담의 담론지형과 쟁점연구 : 학술논문의 주제와 연구방법에 대한 메타분석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67, 195-227.
- 박안나 (2021). 성경적 상담의 사례개념화에 대한 고찰: Sperry 의 모형을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29(2), 109-136.
- 박태수, 고기홍 (2003). 개인상담의 실제. 서울: 학지사
- 서경희, 김지현 (2008). 사례개념화 상담자 자기평가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657-673.
- 서은경, 원수경, 김수정 (2021) 상담 첫 회기 축어록를 활용한 사례개념화 및 목표 전략 워크북. 서울: 학지사.
- 손승영 (2005). 한국사회 저출산 원인과 가족친화적 정책대안. 가족과 문화, 17(2), 285-316.
- 손은정, 이혜성(2002). 상담자 발달 수준별 사례 개념화의 차이: 개념도를 통한 인지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829-843.
- 송영석 (2015). 종교관계의 전통적 근거와 선교신학적 근거 연구: 계시와 관계성 신학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47(2), 269-290.
- 신경림 (2004). 질적 연구 방법론.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출처: 연합뉴스 : 10대 청소년 잇단 극단 선택...상담 건수 5년간 77% 늘어.(계승현 기자, 2023.04.49)

- 왕은자 (2001). 소집단 수퍼비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권 (2014). 기독교(목회) 상담학: 영역 및 증상별 접근. 서울: 학지사
- 유현실 (2009). 진로상담: 진로상담의 성과준거에 관한 델파이 연구. 상담학연구, 0(4), 2187-2206.
- 윤영돈 (2022). 상담윤리의 연구동향과 쟁점 -도덕과 교사의 상담자로서의 측면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64, 33-66.
- 의학신문(2021.05.26.). 한국, 우울증 발생률 36.8%로 OECD 1위...치료율은 최저.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1448>(검색일, 22.8.28)
- 이경직, 김옥란 (2022). 기독교 상담자의 상담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목회 경험이 있는 상담자를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36(4), 281-316.
- 이관표 (2023). 하이데거 존재 사유에서 현상학적-해석학적 본질규정으로서의 해석학적 순환:[존재와 시간]의 '현존재'의 해석학적 순환에서 [시간과 존재]의 '존재'의 해석학적 순환으로의 전회와 관련하여.현대유럽철학연구, 68, pp.297-325
- 이명우 (2017).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사례개념화의 실제 통합적 사례개념화 모형(ICCM-X). 서울: 학지사.
- 이명우 (2004). 상담 사례개념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이명우 (2018).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사례개념화의 실제. 서울:학지사
- 이명우, 연문희 (2004). 상담사례개념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Korea Journal, 12(1), 143-155.
- 이윤주 (2001). 상담 사례개념화 요소 목록 개발 및 타당성 검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윤주 (2001). 상담 사례개념화 요소목록 개발 및 수퍼비전에서 중요하게 지각되는 사례개념화 요소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79-93.
- 이윤주 (2001). 상담 사례개념화 요소목록 개발 및 타당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윤주 (2016). 효율적인 상담사례개념화를 위한 상담사례개념도의 활용.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1(2), 53-72.
- 이재화 & 전요섭 (2012). 이야기상담의 이해와 기독교상담 방안. 복음과 상담, 18, 264-294.
- 이재화 & 전요섭 (2012). 이야기상담의 이해와 기독교상담 방안. 복음과 상담, 18, 264-294.
- 이종성 (2001). 델파이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이지은, 이제경 (2018).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요소목록 개발. 상담학연구, 9 (1), 243-268.
- 임경수 (2009).심리학과 신학에서 본 인간이해.서울:학지사.
- 임경수 (2004).인간발달 이해와 기독교상담.서울:학지사.

- 장동진(Jang, Dongjin); 김용태(Kim, Yong Tae) (2014). 기독교상담에 대한 기독교 상담자들의 인식유형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3), 249-277.
- 장재홍 & 안창일. (1999). 계획 공식화 방법에 의한 심리치료 과정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85-113.
- 전요섭 (2017). 기독교상담 특성이 반영된 사례개념화. 신학과 실천, (53), 255-280.
- 전요섭 (2017). 기독교상담 특성이 반영된 사례개념화. 신학과 실천, (53), 255-280.
- 주혜선 (2016). 트라우마 사례개념화 양식 (TCFF) 의 개발: 사례개념화 기반의 트라우마 심리치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8 (1), 89-125.
- 주혜선 (2016). 트라우마 사례개념화 양식(TCFF)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1), 89-125.
- 최윤미 (2019). 상담 이론에 기반한 상담사례의 사례개념화- 대상관계이론, 인지치료이론, 실존 역동적 접근 방식의 사례개념화.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4(2), 27-41.
- 최은영 (2015). 기독교 상담학: 비평 과 사례. Hwaetpul T'urinit'i.
- 통계청 (2020). 2019년 사망원인통계 자료 사용. <http://www.mentalhealth.go.kr/portal/bbs/bbsDetail.do?bbsId=BBSSTATS&nttId=104> (검색일. 2022. 8.24).
- 하신혜, 김갑숙 (2020). 미술치료사의 사례개념화 과정 경험에 대한 연구. 미술치료연구, 27(2), 283-305.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18). 「한국기독교 분석리포트: 2018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서울: UR)
- 황선미, 박선홍, 김용태 (2016). 실존적 수용과 언약적 수용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조명. 복음과 상담, 24(1), 231-260.
- 황규명 (2011).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 서울: 바이블리더스
- Asmundson, G. J., Paluszek, M. M., Landry, C. A., Rachor, G. S., McKay, D., & Taylor, S. (2020) Do pre-existing anxiety-related and mood disorders differentially impact COVID-19 stress responses and coping?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74, 102271.
- Berman, P. S. (2020). 상담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례개념화 원리와 실제 (이운주 역).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2015)
- Bäuerle, A., Teufel, M., Musche, V., Weismüller, B., Kohler, H., Hetkamp, M., Skoda, E. M. (2020). Increased generalized anxiety, depression and distres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crosssectional study in Germany. *Journal of Public Health*, fdaa106.
- Barendse, M. E., Flannery, J., Cavanagh, C., Aristizabal, M., Becker, S. P., Berger, E. &

- Pfeifer, J. H. (2023). Longitudinal Change in Adolescent Depression and Anxiety Symptoms from before to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33(1), 74–91.
- Clebsch, W. A. & Jaekle, C. R. (Eds.). (1994). *Pastoral care in historical perspective*. Jason Aronson, Incorporated.
- Colaizzi, F. E.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 it. In: Valle, R. S. & King, M(ed.).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 Colaizzi, F. E.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 it. In: Valle, R. S. & King, M(ed.).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reswell, J. W. (2008). *Educational research: planning, conduction, and evalua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3rd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 Flick, U. (2018).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Ganong, L. & Coleman, M. (2004). *Stepfamily relationships*. New York: KI
- Creswell, J. W. (2008). *Educational research: planning, conduction, and evalua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3rd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 Creswell, J. W. (2008). *Educational research: planning, conduction, and evalua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3rd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 Creswell, J. W., & Poth, C. N. (2016).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age publications.
- Devers, E. E. (2013). Embodied integration.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41(2), 141–149.
- Denzin, N. K., & Lincoln, Y. S. (Eds.). (2011).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sage.
- Dowling, M. (2007). From Husserl to van Manen. A review of different phenomenological approache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4(1), 131–142.
- Eells, T. D. (1997). *Handbook of psychotherapy car formula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Eells, T. D.(1997). *Psychotherapy case formulation: History and current states*. In T. Eells, T. D.(2013). *The case formulation approach to psychotherapy research revisited*. *Pragmatic Case Studies in Psychotherapy*, 9, 426–447.

- Eells, T. D.(1997). Psychotherapy case formulation: History and current states. In T. Eells, T. D., Lombart, K. G., Kendjelic, E. M., Turner, L. C., & Lucas, C. (2005). The quality of psychotherapy case formulations: A comparison of expert, experienced, and novice cognitive-behavioral and psychodynamic therapis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 579-589.
- Eells, T. D.(Eds.),(2022). *Handbook of psychotherapy case formula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Ettman, C. K., Abdalla, S. M., Cohen, G. H., Sampson, L., Vivier, P. M., & Galea, S. (2020). Prevalence of depression symptoms in US adults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AMA network open*, 3(9), e2019686-e2019686.
- Fava, M., & Kendler, K. S. (2000). Major depressive disorder. *Neuron*, 28(2), 335-341.
- Flick, U. (2018).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Gary R Collins, *Christian Counseling*. 피현희, 이해련 공역, 크리스찬 카운슬링(서울 : 두란노, 1995).
- Giorgi, A. (2009).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in psychology: A modified Husserlian approach*. Duquesne university press.
- Hvenegaard, M., Moeller, S. B., Poulsen, S., Gondan, M., Grafton, B., Austin, S. F., Kistrup, M., Rosenberg, N. G. K., Howard, H., & Watkins, E. R. (2019). Group rumination-focused cognitive-behavioural therapy (CBT) v.group CBT for depression: Phase II trial. *Psychological Medicine*, 50(1), 11-19.
- Hill, C. E.,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E. N., Hess, S. A., &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2), 196.
- Hvenegaard, M., Moeller, S. B., Poulsen, S., Gondan, M., Grafton, B., Austin, S. F., Kistrup, M., Rosenberg, N. G. K., Howard, H., & Watkins, E. R. (2019). Group rumination-focused cognitive-behavioural therapy (CBT) v. group CBT for depression: Phase II trial. *Psychological Medicine*, 50(1), 11-19.
- Johnson, E. L. (2007). *Foundations for soul care: A Christian psychology proposal*. InterVarsity Press.
- Johnson, E. L. (2010). A brief history of Christians in psychology. *Psychology & Christianity: Five views*, 9-47.
- Jones, I. F. (2006). *The counsel of heaven on earth: Foundations for biblical Christian coun-*

- seling . B&H Publishing Group.
- Jongsma Jr, A. E. & Peterson, L. M. (1995). *The complete psychotherapy treatment planner*. John Wiley & Sons.
- Kim, Jun.(2019). 이야기치료의 재저작 대화: 기독교상담을 위한 적용 방안. *복음과 상담*, 27(1), 121-148.
- Kim, Y. S., Kim, H. S., Pahk, Y. S., Seonwoo, S. & Park, H. S. (1997). Usefulness of Family Counseling.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18(2), 126-135.
- Krueger, R. and Casey, M. (2009).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Sage Publicaitons, Thousnad Oaks, CA.
- Lawshe, C. H.(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1. *Personnel psychology*, 28(4), 563-575.
- Mahmoodi, M., Bakhtiyari, M., Arani, A. M., Mohammadi, A., & Isfeedvajani, M. S. (2021). The comparison between CBT focused on perfectionism and CBT focused on emotion regulation for individuals with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s and dysfunctional perfectionism: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Behavioural and Cognitive Psy.*
- Margaret Zeegers. Deirdre Barron.(2015). *Milestone moments in Getting your PHD in Qualitative Reserch*. Oxford.
- Marmor, J. (1979). Change in psychoanalytic treatmen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oanalysis and Dynamic Psychiatry*, 7(3), 345-357.
- Mayfield, W. A., Kardash, C. M., & Kivlighan Jr, D. M. (1999). Differences in experienced and novice counselors' knowledge structures about clients: Implications for case conceptualiz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4), 504.
- Morgan. D. L. (2007). *질적 연구로서의 포커스 그룹(김성재, 오상은, 은영, 손행미, 이명선 역)*. 서울: 군자출판사,(원전은 1988년에 출판).
- Persons, J. B. (1989). *Cognitive therapy in practice: A case formulation approach*.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Roger Hurding, *The Tree Healing*, 김예식 역, 치유나무: 목회돌봄 및 상담치료에 대한 종합적 이해, 서울: 장로교출판사, 2000: 15-19.
- Santos, I. (2019). EMDR Case Formulation Tool. *Journal of EMDR Practice and Research*, 13(3), 221-231.
- Stanton L. Jones & Richard E. Butman, 「현대 심리치료법」, 이관직역,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5), p. 55.

- Salari, N., Hosseini-Far, A., Jalali, R., Vaisi-Raygani, A., Rasoulpoor, S., Mohammadi, M., Khaledi-Paveh, B. (2020). Prevalence of stress, anxiety, depression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Globalization and Health*, 16, 1-11.
- Sigurvinsdóttir, A. L., Jensínudóttir, K. B., Baldvinsdóttir, K. D., Smáráson, O., & Skarphedinsson, G. (2020). Effectiveness of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 for child and adolescent anxiety disorders across different CBT modalities and comparison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Nordic Journal of Psychiatry*, 74(3), 168-180.
- Silverman, D. (2003). *Doing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handbook*. Thousand Oaks: sage.
- Sperry, L. & Sperry, J. (2014). 상담실무자를 위한 사례개념화 이해와 실제(이명우 역, Case conceptualization: Mastering this competency with case and confidence). 서울: 학지사.(원전 2012 출판)
- Strauss, A. L. & Corbin, J. M.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New York: Sage Publications.
- Solomou, I., & Constantinidou, F. (2020).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anxiety and depression symptom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compliance with precautionary measures: Age and sex matter.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 4924.
- Sue, D. W., & Sue, D. (2008).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and practice* (5th ed.)
- Tan, S. Y. (2011).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 Christian perspective*. Baker Academic.
- Thompson, D.(1996). The tape recorder as a mediating factor in research. *The Australian Educational Resarcer*,23(3),1-12
- Williamson, P. S. (1987). Psychotherapy by family physicians. *Primary Care*, 14(4), 803-816.
- Zeegers, M., & Barron, D. (2015). *Milestone moments in getting your PhD in qualitative research*. Chandos Publishing.
- 강연정 (2019). 기독교 상담의 통합적 원리와 특징. *복음과 상담*, 27(2), 7-33.
- 강용원 /Kang, Yong-Won (2013).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의 전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65(-), 37-73.